

활짝 핀 산수유 꽃샘추위속에서도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20일 구례군 산동면 상위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노란 수재물감을 칠한 것 같은 산수유 물결속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구례 산동=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국적군, 리비아 공격

미사일 110발 발사...정부, 교민 전원철수 검토

프랑스와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강대국들이 19일(현지시각) 리비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본격 개시했다. 지중해에 배치된 미국과 영국 해군 함정들은 리비아를 향해 최소 110여 발의 크루즈 미사일들을 트리폴리 주변 방공망 시설을 목표로 발사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약 20대에 달하는 프랑스 공군의 라팔과 미라주 전투기들은 이날 오후 리비아 영공에 진입했으며, 리비아 군용차량에 사격을 가해 유엔의 비행 금지구역 설정 후 처음으로 실제 공격에 나섰다. <관련기사 5면>

프랑스 전투기의 공격 직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리비아 사태 관련 주요국 회의를 마친 뒤 "무아 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국제 사회의 최후통첩을 무시했다"면서 "리비아에 대한 군사행동이 개시됐다"고 선언했다.

독일 dpa 통신은 윌리엄 고르트 니 제독의 말을 인용, 미국과 영국이 리비아 방공망 시설 등을 포함

해 약 20곳을 목표로 1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서방 주요국들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전격 개시함에 따라 현지 상황이 악화하면 잔류 교민을 전원 철수하기로 하는 등 대외계획 긴급 점검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0일 "단계별 철수 계획이 모두 수립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잔류 국민 전원을 철수시킬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알림

'월요 광장'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대표 칼럼 '월요 광장'의 필진이 오늘부터 새로 바뀝니다.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 지식과 해안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새 필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갈등구조에 대한 해법과 함께 광주·전남의 현안과 과제 등 국내·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필치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월요 광장'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고영을 이사장 한희원 화가 김세곤 위원장 이원규 시인

- ◇고영을 고구려대학 이사장
 - ▲전남대 졸 ▲조선대 교육대학원 수학 ▲광주·전남 문화유산 연대 공동대표 ▲전남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광주 무형문화재 탐학 이사장 ▲파리, 베를린 등 문화 개인전 및 초대전 9회
- ◇한희원 화가
 -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 졸 ▲뉴욕아트엑스포, 마이애미아트페어 ▲광주시전·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대동미술상 수상 ▲상해주기찬 미술관 초대전
-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전남대 법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영국 워릭대 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석사 ▲행시 합격 ▲주미한국대사관 노무관 ▲유럽의 노사관계와 교육' 외 저서 다수 ▲한국 수필가 협회 회원
- ◇이원규 시인·환경운동가
 - ▲계명대 경제학과 수학 ▲1984년 '월간문학'에 '유배지의 풀꽃'으로 작품활동 시작 ▲제16회 신동엽 창작기금 수상 ▲'뿔치산 편지' 외 다수 시집 발표 ▲2004년부터 지리산서 창작 활동

총선 판이 꿈틀거린다

1년여 앞두고 입지자들 출판·포럼활동 활발

제19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금배지'에 도전할 광주지역 유력 정치인 및 정치 신인들이 개인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출판기념회와 포럼을 잇달아 열어 인지도를 높이고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내년 총선 '도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현역 불같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민에 다가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쟁기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구 수성(守城)'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복을 도모하는 최경환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이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 리더십' 광주출판기념회를 갖고 지역구민 접촉을 늘려갈 예정이다.

일찌감치 광주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여는 등 지역 표심을 다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광석중 의원(비례)도 같은 날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포토에세이 '행복세상 이야기'와 의정에세이 '평등세상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각종 포럼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용화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호남미래연대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임내현 전 고검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도 초청강연과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역민들 속으로 다가가고 있고,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빛고을시민포럼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진주 전 JC중앙회장과 송갑석 전 전남대총학생회장 등 10여 명의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개인 사무실을 내고 지역구민 접촉을 늘려가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입지자들이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역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물갈이의 기준이 ▲정치적 역량 ▲도덕성 ▲지역 기여도 ▲성장 가능성 ▲다산 등이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초선은 물론 중진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현역은 물갈이 바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방식이 국민참여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현역들은 '위험선상'에 설 수밖에 없다"라며 "이 같은 점 때문에 일부 입지자들이 총선이 1년이나 남았지만,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사실상 현역의 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맞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지역구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조직을 대폭 강화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민들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 민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日 원전 1·2호기 전원 복구

3호기 격납용기 압력 상승 방시능 공포 여전

방사능이 대량 유출되고 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의 외부 전력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위기 타개의 열쇠인 원자로 건물 내부의 냉각기능 회복에 한걸음 다가섰다. <관련기사 2·3·5면>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을 위한 물 투입이 집중된 3호기의 격납용기 내 압력이 상승해 다시 방사능의 대량 방출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 사인 도쿄전력(TEPCO)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계속된 1, 2호기에 송전선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통해 전력케이블 접속을 완료했다. 전원의 복구로 원자로 건물 내부의 전기시스템이 정상화하면 냉각펌프의 가동 등으로 원자로 내 압력용기의 냉각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이 가능해지면서 방사능 유출 억제와 노심(爐心) 용융 등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된다.

도쿄전력은 이날 중 4호기의 전력 복구 작업도 완료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복구된 전력시스템을 통해 원자로의 냉각시스템 가동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지만, 누전 위험 등에 대한 점검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호기와 6호기는 지난 19일 원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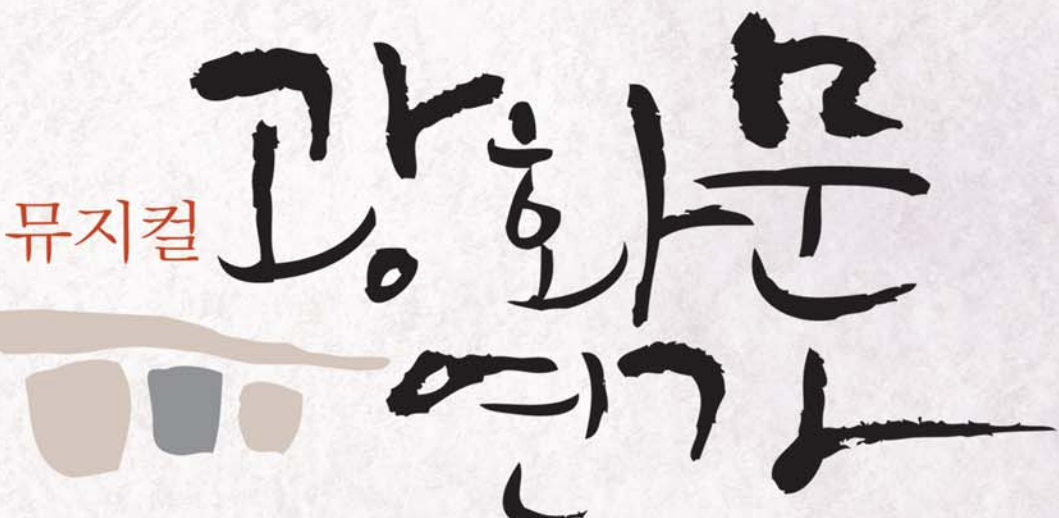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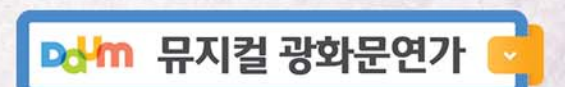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컴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이제 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 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